

오천년의 역사를 다음 오천년까지....

(주)해성문화재보존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처리 / 유물보존환경 관리 / 유해해충 방제

해성문화재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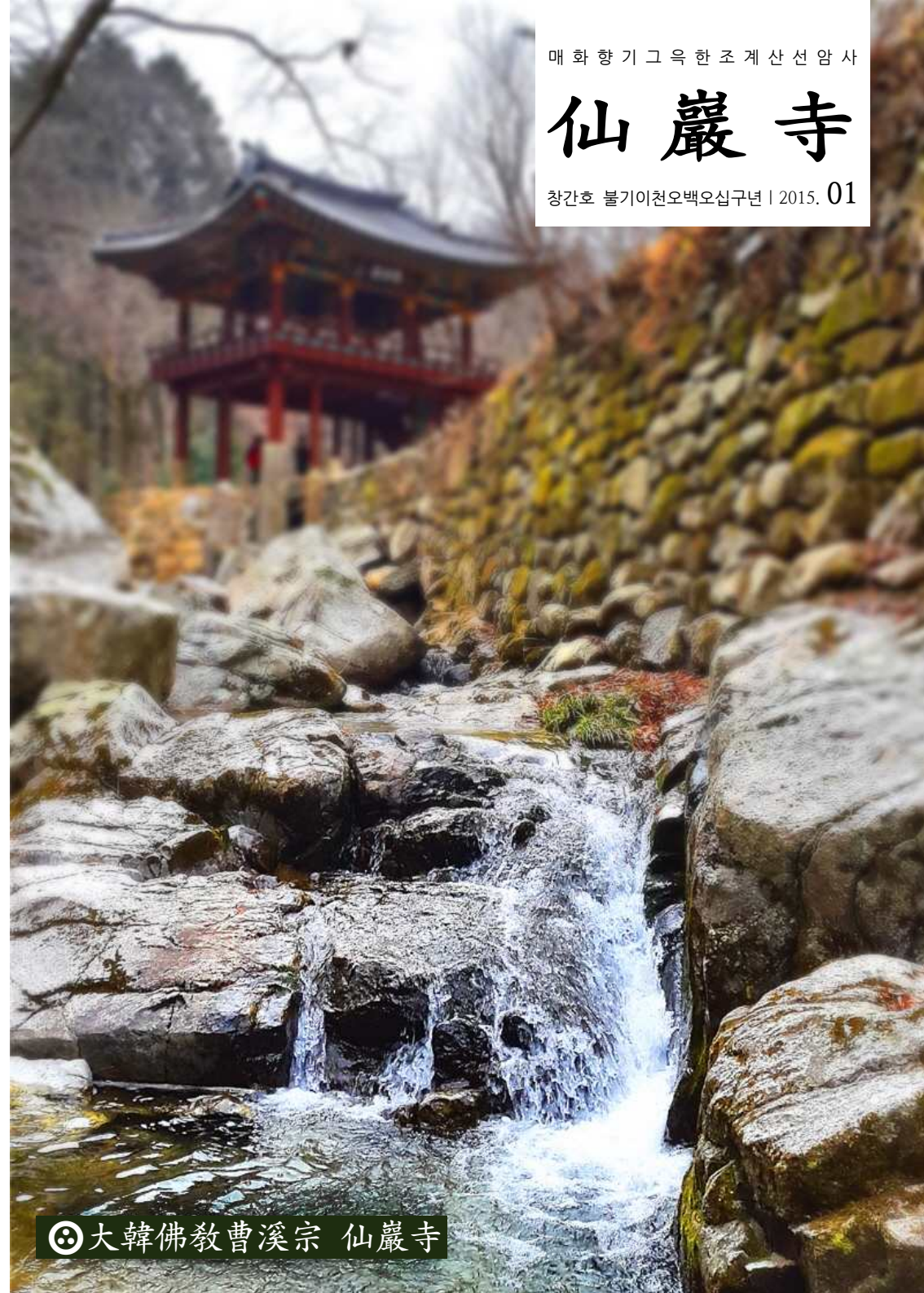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21

전화 : 061-753-2900

매 화 향 기 그 읍 한 조 계 산 선 암 사

仙巖寺

창간호 불기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1



☯ 大韓佛教曹溪宗 仙巖寺

선암사의 인물



도선국사 827~898

도선국사(827-898)는 신라말기에 활동한 선승으로, 남쪽지역의 비보사찰(裨補寺刹)로 '巖'자가 들어가는 세 절인 삼암사(三巖寺)의 하나로 선암사를 중창하였다.

화기에 따르면 1805년에 도일비구(道日比丘)가 선암사 대각국사(보물 제1044호) 진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이 두 진영은 유사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매 화 향 기 가 득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창간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선암사의 인물	도선국사	2p
주지스님 법문	행복의 조건	4~5p
기초교리 강좌	삼귀의(三歸依)	6p
선암사의 성보문화재	보물 제 955호 선암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7p
이달의 풍경	설중쌍선(雪中雙仙)	8~9p
신도탐방	성법 김성춘 거사	10~11p
사찰건축의 이해	사찰의 성립	12~13p
선암사 소식	전월 행사 및 예정행사	14p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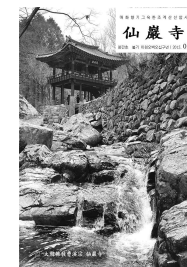


사진 진 우

표지설명

한겨울 승선교와 계류
선계가 겨울의 한 중심에 들어섰다.

발행일 2015년 1월 15일
발행인 법원(法願)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집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성궁 현광 허수길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AX 061) 753 - 5108
홈페이지 www.선암사.org

행복의 조건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

불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문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화목, 사업번창, 자아실현, 행복.....
등등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목표를 이루고자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욕망을 한데 묶어서 보면 아마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행복의 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부탄의 총리는 국민소득지수가 아닌 국민 행복지수로서 부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부탄의 종교는 불교가 75%, 힌두교가 25% 정도인데 국민 대다수가 불교적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슈타인 박사의 유명한 공식인 $E=MC^2$ 라는 공식처럼 부처님의 행복공식도 유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text{행복} = \frac{\text{삶에 필요한 재화}}{\text{욕망}}$$

물론 부처님께서 이 공식을 직접 설하셨다기 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식에서 ‘행복’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는 분자인 ‘삶에 필요한 재화’를 키우는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모인 ‘욕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번째 방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일반적이기는 하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화가 늘어난 만큼 욕망도 따라서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의 감사했던 천만원이 부유해진 이후에 같은 가치로 다가 오지 않는 것처럼, 또 힘들게 마련한 24평 아파트가 주는 행복도 잠시뿐이고 주변 친구들의 40평짜리 아파트를 보는 순간 다시 큰집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재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서 행복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은 분자인 ‘삶에 필요한 재화’는 나와 의 연만큼에 만족하고 수행을 통해 ‘욕망’을 줄여나가며 ‘행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발우하나에도 감사하며 오늘도 법을 참구하는 스님들의 ‘삶의 그 좋은 예입니다. 재가자로서 욕망을 줄여나가는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소소한데서부터 그러한 욕망을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아침 햇살에도, 그윽한 차 한잔에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음에도 행복해 하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한 달간 잘 자신을 다스려보시고 다음 법회시간에 지난 한 달간의 자신의 노력이 어떠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정진, 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 ☺

불기 2558년 09월 27일 월례법회 법문 중에서.....

삼귀의(三歸依)

편집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歸依法 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歸依僧 衆中尊]

법회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삼귀의문을 외운다. 삼귀의는 불교의 세가지 보배 즉, 삼보(三寶)인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스님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삼보란 불교도의 세 가지 근본 귀의처(歸依處)인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로서 불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삼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불교도는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시작되며 최후까지 삼보에 귀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교도에게는 불가결한 요건이며,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을 막론하고 삼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삼보의 성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成道)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35세가 되 시던 해 12월 8일의 이른 새벽에 대각(大覺)을 이루시고 정각(正覺)을 얻어 눈을 뜨게 된 자, 즉 불(佛)이 되었다는 자기혁신의 일대 전환으로써 불보가 성립되었다.

성도한 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즐기셨으나, 얼마 뒤 이러한 법락(法樂)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지난날 같이 고행(苦行)을 하던 다섯 사람의 수행자를 찾아 녹야원(鹿野苑)으로 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중도(中道)와 사제(四諦)·팔정도(八正道)·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법(法)을 설하시었고 이것이 법보이며 이 설법을 듣고 최초의 제자인 5비구(比丘)가 나타나게 되어 승보를 이루게 되었다. ☸

화려했던 고려 불교의 추억

보물 제955호 선암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이 유물은 1988년 보물 제 395호 선암사 삼층석탑 해체 수리시 동탑 1층 하부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물로 청자 향아리, 백자 향아리, 금동사리탑이 각각 1점씩 발견되었다.

이 중 금동사리탑은 높이 6.2cm, 폭 1.9cm의 크기로 3겹의 꽃잎이 위로 벌어진 연좌 위에 탑의 몸체와 지붕돌을 갖추었다. 사리탑 안에 회백색 타원형의 사리 1개가 팔각 원통 모양의 수정 그릇 안에 모셔진다. 이 사리탑은 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의 사리장치 연구는 물론 당시의 금속공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지배한다.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말하고 행동하면

재앙과 고통이 그가 지은 대로 찾아온다.

수레가 빠격이며 바퀴자국을 쫓아가듯이

법구경 제1장 쌍요품(雙要品) 중에서...

일일호일(日日好日)

성법 김성춘 거사

편집실



언제나 노력하는 불자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순천 조례동 법조타운.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마치 감로도의 인생사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곳이 법정과 주변의 법조타운일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군상들 속에서 언제나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전암사 신도가 있으니 바로 공인중개사인 성법 김성춘 법우이다.

법우는 1996년도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 동안 토목현장의 기술자로서 소임을 보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지금의 길을 걷고 있다.

1989년 불교학사회 동아리방문을 두드리며 시작된 부처님과의 인연도 벌써 26년째에 이르렀을 만큼 오랜 수행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도 거르지 않고 새벽예불을 모시는 수행하는 불자이기도 하다.

그는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사회 불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기도 하고 있는데 관내 중요한 불교 행사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행사가 없을 정도로 열성이 대단한 불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신심이 돈독한 성법 김성춘 법우가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생업 속에서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점은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법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양도양수한 양 당사자들의 재산상의 이익은 물론 거래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자신을 통한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도 가을학기에는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실폐없는 내 집짓기 우리동네 건축학교’ 강좌에 출강하여 평생의 소원인 내집마련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올바른 부동산의 선택과 거래 방법을 재능기부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衆生)

제가 기독교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 때 었습니다. 불교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던 시절 지도법사 스님께서 들려주신 한 구절입니다. 너무도 일 반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너무도 제게는 불자로서 앞으로의 삶의 지표가 된 소중한 구절입니다. 결국 모든 불자는 성불에 목적이 있고 또 성불이라는 것도 자리(自利)를 위한 것만이 아닌 이타(利他)를 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무작정 기도하고 참선하던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수행과 봉사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되자 모든 일이 즐거워 졌습니다. 새벽예불도, 참선수행도 즐겁고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작지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모든 게 내 공부이고 성불을 향해 가는 길이라 생각하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좋은날 나날이 호시절이지요.(웃음)

요즘은 새벽예불과 아침 참선을 통해 개인적인 수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반이 많이 늘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은 천년고찰이 다수 포진해 있는

불교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심포교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몇 해 전 순천대학교 불교학사회를 살펴보고 친구와 함께 동아리방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아 당기에 먼지와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순천시내에는 정식인가를 받고 설립된 불교대학이 없어 그나마 있는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불교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나름 열심히 수행하고 봉사하며 살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모두 해야 할 일이지만 저 혼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소가 걸음을 옮기듯이 묵묵히 현재에 충실하며 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암사와 신도님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불자들과 함께 하여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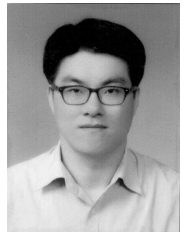
아직은 그 힘이 미약할지 몰라도 진심을 가진 신도들이 사심 없이 뚝뚝 뭉쳐 추진한다면 능히 해내고도 남을 일이 아닐까하네요.....

급하게 올린 전화를 따라 고객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좋은 일 만나러 가는 아이들 마냥 사뿐거린다.



성법 김성춘

공인중개사
광양시 평생교육원 강사
순천대 평생교육원 강사
전북대학교 불교학사회



사찰의 성립

김희철 / 선암사 종무실장

우리가 흔히 ‘절’이라 부르며 찾는 사찰은 정사(精舍), 가람(伽藍), 사원(寺院), 사찰(寺刹), 절, 절간, 산사(山寺)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곳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 등을 모신 곳이다. 더불어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 수행을 하고 설법을 듣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의 장소를 여러 단어로 불리는 까닭은 바로 불교가 인도에서 건너오면서 중국을 거쳐 한자로 음역되고 다시 우리나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어가 상황에 맞게 변용되기 때문이다.

정사(精舍)라는 말은 인도에서 사찰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인도에 있어서 최초의 사찰은 죽림정사(竹林精舍)이다. 부처님이 녹야원(鹿野院)에서의 최초의 설법 후에 마갈타국의 수도인 왕사성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마갈타국의 가란타 장자의 소유인 죽림(竹林)을 회사받아 그곳에 집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 불교의 역사상 최초의 정사인 죽림정사인 것이다.

또한 범어 상가람마(samgharama)는 한

자로 승가람마(僧伽藍摩), 가람(伽藍)이라 불리게 되면서 가람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중원(衆園)이라고 의역되기도 하는데, 이 모두를 총칭하여 정사(精舍)라고 번역한다. 중원이라는 말은 불교를 신봉하고 수행하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다.

사원(寺院)은 인도에서 정사나 가람(상가람마)이라고 불리던 것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사(寺)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자(漢字)의 사(寺)는 중국에서 사찰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이전에 관아에 붙여 쓰던 말이었다. 후한명제(後漢明帝) 연평(永平) 10년(67)에 인도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라는 두 스님이 장경(藏經)을 싣고 낙양(洛陽)에 왔을 때 외국인들을 위한 관아(官衙)인 홍려사(鴻廬寺)에 머물도록 하였고 홍려사라는 이름도 두 스님이 타고 오신 흰말을 기념하여 백마사(白馬寺)라고 고쳐 부르게 된 것이 중국에 있어서 사찰의 효시이다. 그 뒤로 중국에서는 불도를 수행하는 승가(僧伽)들의 거처를 사(寺)로 부르게 되었다.

이 ‘사’라는 말과 더불어 원(院)이라는 말



중국최초사원 백마사

은 원래 주위에 둘러친 담을 말하는데 이것이 변하여 주원(周垣), 회랑(回廊)이 있는 건물을 의미했으며, 관사의 이름에도 쓰였다고 한다. 당나라 시대에 직명에 의하여 대자은사(大慈恩寺) 등에 변경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교와 관련된 건물에 원(院)이라는 이름을 붙인 효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찰은 범어로 비하라(vihara)라고 하고 비하라(毘訶羅)라고 음역하며, 수행을 하는 도량이라는 뜻으로 주처(住處), 유행처(遊行處) 등으로 번역한다.

절은 사찰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로, 그 연원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있지만,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에 묵호자(墨胡子)가 일선군(一善郡)의 모례의 집에 와 머물면서 몰래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한다. 모례는 원래 국어의 ‘털레’를 한자로 음사한 것으로 ‘털레’의 집에 불상이 모셔져 있고, 불교인들이 모여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털레의 집은 가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를 행할 수 있는 집을 ‘털레’라고 부르게 되었

고, 이 ‘털레’가 털 → 절[사찰]로 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절간은 절과 건물을 뜻하는 한자 간자가 합해져서 불리는 단어이다.

이처럼 사찰은 많은 단어로 불리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부처님과 스님, 불자들의 도량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며, 불자들이 더불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수행처란 의미가 가장 본연의 의미인 것이다. ☺

현광 김희철

現)선암사 종무실장

순천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수료
3급 정학예사(建築史)
(사)역사문화연구원 마루
선임연구원



12월 진행행사

01.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지난 12월12일 한국불교문화역사관 국제회의장에서 선암사를 비롯한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02. 순천 문화유산 심포지엄

지난 12월13일 순천 문화의 거리 한옥글방에서 '순천의 문화유산 활용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선암사에서는 '순천의 목조문화재의 관리와 보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각계전문가가 참석하여 8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03. 불기 2558년 송년법회 봉행

지난 12월16일 연말을 맞이해 신도님들과 송년행사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친목을 도모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1월중 행사안내

01.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월보 '仙巖寺' 발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서 불기2559(2015)년 1월부터 월보 '仙巖寺'를 발간합니다. 선암사 관련 내용부터 신도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정보와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2. 종무소 신년 워크숍

오는 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신년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도 사업평가와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03. 불기 2559년 신년법회

오는 1월 24일 토요일 11시에 선암사 차 체험관에서 신년 정기법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미년 새해를 시작하는 법회인 만큼 신도님들의 가족, 지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방 이야기

01. 박병열 신도 순천대학교 중강

건축사로 활동 중인 박병열 신도가 지난 가을 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한 '우리동네 건축학교'가 15주간의 긴 강좌를 마치고 무사히 종강하였습니다. 예비 건축주들에게 올바른 주택건축교육을 목표로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02. 박철희 신도 광주전남 벤처기업 협회장 취임

(주)엑스퍼트 대표이사인 박철희 신도가 지난 12월 사단법인 광주전남 벤처기업 협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박철희 신도는 취임사에서 협회 사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03. 김보현 신도 해군사관학교 합격

고교생 불자인 김보현 신도가 해군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오는 1월에 실시되는 가입교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어엿한 해군사관생도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 신년 법회 안내 -

일시	불기 2559(2015)년 1월 24일 (토) 오전 11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상	선암사 신도 및 가족, 지인 누구나
동참금	1만원